

**너희가 산 죽음을 죽은 생의 본래의 산스카라들은
너희의 첫 의식이며 첫 약속이다.**

오늘 밥다다는 세계의 가장 고귀한 영혼들을 보며 행복하다. 모든 영혼들 중에서 오직 너희들 소수의 영혼들만이 이 고귀한 행운을 갖고 있다. 너희 자녀들이 행운의 공여자인 아버지를 보며 행복하듯이, 아버지도 역시 너희들 복 있는 자녀들을 찾았기 때문에 더욱 더 행복해진다.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헤어져 있었고, 따라서 그가 너희들을 찾았을 때 왜 행복하지 않겠느냐? 각 자녀와 각 별의 광채의 특징, 각 영(영혼)의 광휘 또는 영성의 신성한 광채 - 아버지는 이것을 알지만 너희 자녀들은 때때로 이것을 잊기도 한다. 모든 장애, 각종의 역경 그리고 불순한 성질에 대해 일초 만에 승리를 얻으려면 너희들은 단순히 한 가지에 대한 믿음과 도취감을 갖기만 하면 된다. 이 한 가지 측면이 무엇이나? 너희들에게 거듭해서 이것을 상기시켜준다; 너희의 마음도 생각의 형태로 이것을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산스카라를 가질 수가 없다. 그에 관해 생각하고, 이해하고,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때때로 그것을 잊는다! 그것이 무엇이나? 너희들은 오래 전에 이에 관해 말을 들었다. 그것은 “와 레 나 자신!” (나의 경이로움!) 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들을 때 행복해지지만,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잊는다. 너희가 산 죽음을 죽은 이 생의 산스카라는 “와 레 메” 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너희 생의 본래의 산스카라, 즉 너희 생의 첫 의식과 이 생의 첫 말인 “나는 고귀한 브라민 영혼이다” 조차도 잊는다. 너희들은 망각의 게임을 즐긴다. 너희들은 반사이클 동안 망각의 게임을 해왔다. 아직도 너희들은 이 게임을 즐기느냐? 브라민이 된다는 것은 힘의 화신이 됨을 의미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의 형태를 잊는다면 너희 자신을 뭐라 부르겠느냐? 밥다다는 너희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희 자녀들에 대해 자비심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또한 재미있어 한다: 그런 대단한 영혼들이 뭘 하는가를 좀 보라! 너희들은 더욱더 놀라운 게임을 한다! 그것이 무엇이나? 너희들은 너희가 무얼 하는가를 아주 잘 안다; 너희들은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바에게 말해줄 수 있다. 너희들 중 일부는 숨바꼭질을 한다! 때때로 너희들은 “와” 라 말하고 때로는 “하이” (오!)라고 말한다. 앗차. 너희들 모두 너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보다 더 경이로운 어떤 게임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을 때, 산 죽음을 죽었을 때, 너희의 첫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들은 이것도 역시 매우 잘 안다. 너희들은 너희가 어떤 약속을 했는가를 안다. 아버지는 너희가 약속을 하게 만들었고, 너희들은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후에 너희들은 무얼 하느냐? 아버지가 말했다: 슈드라의 사악한 산스카라들을 버려라. 그래서 너희들은 영혼의 사악한 산스카라의 의상을 벗고 신의 산스카라의 신성한 의상을 입었다. 너희들은 슈드라의 표시인 불순한 시선과 태도를 모두 변화시켰고, 순수한 태도와 시선의 특별한 징표들을 받아들였고, 따라서 모든 관계들과 재산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에 권리를 차지했다. 비록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고귀한 영혼들은 왕가의 어린아이가 결코 바닥에 떨어진 것이나 버려진 것을 줍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떨어트린 것이나 버린 뭔가를 결코 도로 가져가지 않는다. 너희들 모두 너희의 지각에서 악덕들을 버리려는 생각을 가졌다. 너희들은 악덕이 쓸모 없고 뭔가 몹쓸 것이라 여겼고, 따라서 약속을 하고, 그것을 버렸다. 너희들은 다시는 그 독에 탐닉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런 다음 너희들은 무얼 하느냐? 왜 너희들은 뭔가 버려져서 더럽고, 쓸모 없고, 타버리고, 썩은 것을 주워서 다시 사용하느냐? 너희들은 너희가 어떤 게임을 해왔는지 알겠느냐? 너희들은 무지의 게임을 해왔다. 이 게임들을 보며, 바바는 너희들에게 자비심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재미있어 한다. 너희들은 자니자난하르(모든 비밀들을 아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 카란하르(뭔가를 스스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너희 자신을 카란하르인 자들로서 드러내라. 너희의 마음 속으로 너희가 버린 쓸모 없는 것들은 무엇이든 도로 가져갈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에 관해 생각해 본 다음 너희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약속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이행하고 있느냐? 너희 자신의 자아존중과 고귀한 의식을 가지고 고귀한 삶의 힘의 화신이 되어라.

너희들은 무얼 하겠다고 말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제 저 모든 놀라운 게임들을 그만 해라! 고귀한 존재가 되어라; 고귀한 배우가 되어 고귀해지는 게임을 해라. 너희가 그런 마지막 제물을 바치려는 결단을 가질 때라야 변모 행사(transformation ceremony)가 있을 것이다. 이제 집회 안에서 이 행사를 위한 날짜를 정해라. 앗차.

마음 속에 결단력을 가진 자들에게, 생각이 그들의 형태와 같은 자들에게; 자니자닌하르이며 카란하르인 자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또한 모든 행동을 통해 아버지를 빛내는 모든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와 다디들의 만남: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를 부를 때 온다. 너희 자녀들이 바바에게 요청을 하고, 그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또한 뭔가를 도로 가져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어차피 그와 함께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다른 무엇을 도로 가져가겠느냐? 바바는 모든 자녀들의 결단력 있는 생각이라는 마지막 희생제물을 가져갈 것이다. 희생의 불(야기야)이 있을 때 마지막 제물은 프라싸드(거룩한 제물)이다. 이 야기야는 몸을 가진 존재를 통해 육신 세계에서 창조되었다. 브라마는 그의 역할을 했고, 너희 브라민들에게 이 야기야를 유지할 책임을 주었다. 밥다다도 이 야기야의 특별한 프라싸드를 받아들일 것이다. 누군가가 너희를 만나러 올 때마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뭔가 프라싸드를 준다. 밥다다도 역시 약간의 프라싸드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 프라싸드를 준다는 것은 세계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올해 쉬브 라트리에 너희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바바의 소개를 받는 봉사를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너희들은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과 함께 또한 그들이 아버지를 일별하거나 경험하는 프라싸드를 경험하게 해주려는 생각을 가져라. 너희가 행사를 열 때는 모든 이가 프라싸드를 나눠주는 곳에 끌린다. 프라싸드의 매력 때문에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곳으로 간다. 따라서 그런 분위기를 창조하려는 목표를 간직해라. 너희의 힘을 바탕으로, 그리고 특히 너희의 자비로운 생각의 매력을 가지고, 나약한 영혼들에게 성취와 경험의 프라싸드를 나눠주어라. 이와 함께 마음 속에 자니자닌하르와 카란하르의 실질적인 화신으로서 그들 자신을 드러내려는 결심을 한 마하비르들의 특별한 그룹을 만들어라. “설령 죽어야 한다고 해도 나는 내 종교를 버리지 않겠다.” 는 말이 있다. 너희들은 그런 다르나를 가져야 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설령 마야의 마하비르 형태가 너희 앞에 온다고 해도, 너희들은 자신의 다르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처음에 너희들은 노력가들의 다양한 그룹을 만들었다. 너희들에게 “신성한 화합(divine unity) 그룹”이라 불리는 그룹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떤 그룹을 만들겠느냐?

이번 쉬브 라트리를 위해서 장애의 파괴자인 판다바들과 삭티들의 특별그룹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밥다다는 이 프라싸드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야기야에 바치는 마지막 제물의 향기는 멀리 퍼진다. 따라서 밥다다도 역시 육신 세계에 있는 야기야의 특별한 향기의 좋은 소식을 서틀리전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종류의 프라싸드를 준비해라. 바바는 단연코 뭔가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 제물은 집으로 돌아가는 문을 열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문이 열리도록 지금 너희들의 수가 아주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문을 열 것이냐? 아버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혼자서 뭐라도 한 적이 있느냐? 지금도 그는 혼자가 아니다. (자녀들끼리 바바가 혼자서 가버렸다는 말을 했었다.) 첫째로 밥과 다다는 서로의 동반자이고, 따라서 그들은 혼자일 수 없다. 그런 다음 또한 너희 자녀들이 있다. 너희들은 바바와 함께 머물지 않느냐? 너희가 어떤 약속을 했느냐? 바바와 함께 살고, 바바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바바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한 약속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제 약속을 바꿨느냐? 너희가 한 약속은 아직도 같다; 너희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바바가 가버리는 것은 아니다. 사카르 형태로 너희들은 잠시 동안 사카르 바바의 동반을 가졌고, 그것 역시 사카르 형태 안에서 오직 소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바는 이제 모든 이와 함께 할 수 있다. 사카르 형태에서는 뭔가 굴레들이 있었지만, 지금 바바는 굴레에서 자유롭다. 이제 속도가 강렬하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주님을 너희 앞에 임하도록 불렀다.

너희들은 이제 애착을 초월해서 바침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바쳤을 때 애착은 흔적처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함께 머물고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너희가 오늘날 함께 머물러야겠느냐? 너희들은 끊임없이 함께 머물러야 한다. 앗차, 그러면 이제 이 프라싸드를 준비해라. 판다바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그 때가 이드(회교축제-역주)의 때였다.) 너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단연코 뭔가를 보여주어라. 우리는 판다바들과 삭티들 중, 어느 쪽이 앞서 달려나가는지를 볼 것이다. 너희가 어떤 이드를 축하하더라도 “나”의 의식을 버리는 것이 이드를 축하하는 것의 의미다. 이제, 우리는 너희가 어떤 프라싸드를 준비하는가를 볼 것이다. 판다바들이 뭔가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삭티들이

뭔가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뭔가를 준비할 것이냐? 앓차.

밥다다와 UP지구의 만남: UP지구는 특별히 복이 많다. UP의 특질은 그곳의 땅이 매우 사랑이 많고 헌신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헌신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 너희들은 헌신적인 땅에 신봉의 열매를 주는 도구들이 되었다. 모든 지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념비가 UP에 있다. 따라서 이제 특히 UP 땅의 기념비들에 관해 상기시켜주어라. UP에 많은 확장이 있다. 이 확장 속에 지식의 씨앗을 뿌리고 지난 사이클로부터의 꽃들로 아버지의 정원을 준비해라. 어떤 경우든, UP 땅은 매우 결실이 풍부하고, 따라서 너희들은 화원을 더욱더 늘릴 수 있다. 지식의 갠지스강이 모든 곳에 흐르게 해라. 강들의 중요성도 또한 UP에서 특별히 기억된다. 갠지스강에서 몸을 씻는 것의 중요성도 또한 UP에서 기억된다. 몸을 씻는 것이 중요하듯이 지식에 몸을 담그는 것의 중요성도 늘려라. UP의 중요성은 그 위대함에 있다. 제도에 따라 지식의 순례지가 UP에서 시작되었다. 제도에 따라, 칸푸르와 러크나우의 영혼들이 도구가 되었다. 텔리에서는 그저 어머니들이 초대장을 보냈다. 제도에 따른 초대는 칸푸르와 러크나우에서 왔다. UP의 칭송은 텔리의 칭송과는 별개다. 그것은 매우 훌륭하다. 이제 칭송이 기억되는 만큼 너희들은 그에 맞게 그만큼 위대한 과업을 행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다른 지구에서 아직까지 행해지지 않은 그런 특별한 과업을 행해라. 각 지구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고안해야 한다. 너희들은 멜라를 가졌고, 또한 큰 회의(컨퍼런스)도 열었다.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전에 그런 것을 결코 들어보거나 본적이 없다고 느낄 그런 뭔가 아주 새로운 것을 고안해라.

밥다다와 아그라에서 온 이들과의 만남: 너희들은 자신의 행운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행복한 상태에 머무느냐? “와 나의 행운!” 너희들은 마음 속으로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느냐?: “와 바바, 와 드라마, 그리고 와 나의 역할!” 너희들이 뭔가를 할 때 그 일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해방된 삶의 단계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모든 행동을 행하는 자신을 경험하느냐? 물론 너희들은 황금시대에는 어차피 해방된 삶의 유산을 받겠지만, 지금 이 때에 해방된 삶의 단계, 삶 속의 굴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 위대하다. 따라서 지금도 너희들은 지식과 요가의 힘을 가지고 해방된 삶의 단계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뭔가 굴레가 있느냐? 모든 굴레들은 끝났고, 너희들은 삶 속에서 해방되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삶 속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희에게는 게임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 시험이 아니라 게임이다. 설령 너희의 몸이 병이 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마야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게임으로 경험해야 한다. 너희들은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 게임은 재미를 위해 하는 것이지 불행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게임으로 여김으로써 너희들은 해방된 삶의 단계를 경험할 것이다. 너희들은 삶 속에서 해방되어 있느냐 아니면 굴레를 경험하느냐? 몸이나 육신의 관계의 아무런 굴레도 없게 해라. 너희들은 그저 마치 게임인 것처럼 너희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굴레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은 고귀한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 굴레 속에 있는 자들은 여기에 묶여 있는 반면에 굴레에서 자유로운 자들은 높이 날아갈 수 있다. 너희들 모두 자신의 새장을 박차고 나왔느냐? 굴레는 어떤 것이든 새장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굴레의 새장에서 벗어났다. 너희들은 또한 애착을 갖지 않고서, 그저 명목상으로 너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럴 때라야 너희가 굴레로부터 자유롭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관리자라 여길 때 굴레에서 자유롭다. 만일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너희들은 새장에 갇힌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새장에 갇힌 새들이 아니라 천국의 새들이다. 처음에 너희들은 너희가 새장에 갇힌 새가 아니라는 노래를 부르곤 했다. 이제 너희들은 천국의 천사들이 되었다. 너희들은 모두 천국으로 날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새장에 갇힌 새에서 천사들이 되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전혀 굴레가 없어야 한다. 너희의 마음 속에 아무런 굴레가 없어야 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이것 역시 너희 마음의 굴레다. 만일 너희가 원할 때 뭔가를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나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굴레에서도 역시 자유로워져라. 이것을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한다.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고, 따라서 자녀들은 자유로운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삶이 최고다”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이냐? 너희들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냐? 아이들이란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을 의미한다. 만일 너희가 아직도 너희 자신을 과거의 삶 속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굴레다. 만일 너희가 산 죽음을 죽었다면, 너희들은 굴레에서 자유롭다. 너희들은 쿠마르든 은퇴의 단계에 있든, 모두가 자녀들이다. 기억에 머물

며 봉사에 몰두하라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한 가지 과업을 단순히 기억하기만 해라. 끊임없이 이에 바쁘게 지내라.

드라마에 따라서, 처음부터 수립의 과업에 협조해온 영혼들은 단연코 어떤 형태든 특별한 협조를 받는다. 이것은 보장되어 있다. 밥다다는 여기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지금 이 때에 보답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또한 미래를 위해서도 축적한다. 앗차.

축 복: 불멸하고 무한한 권리의 도취감과 행복을 가지고 끊임없이 태평해라.

세상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난 후에 권리를 차지하는 반면 너희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권리를 얻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리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와, 모든 권리를 가진 고귀한 영혼인 나.” 이 무한한 권리의 도취감과 행복을 유지하면 너희가 끊임없이 태평할 것이다. 이 불멸하는 권리는 보장되어 있다. 뭔가가 보장되어 있을 때 너희들은 태평함을 유지할 수 있다. 너희의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넘겨주면 모든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슬로건: 관대한 마음과 크고 무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화합의 토대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